미추홀외고 자기소개서

규정은 다 지켰는데, 왜 떨어질까

내용의 함정 베스트 7
사례로 보는 '닿지 않는 글'

수상 경력이나 인증 점수를 적는 '규정 위반'은 체크리스트 한 장이면 걸러집니다. 정작 문제는 규정을 다 지키고도 심사위원의 마음에 닿지 않는 글입니다. 너무 피상적이거나, 진실성이 드러나지 않거나, 자기 감정에만 충실해서 전달이 되지 않는 글들입니다.

이 자료는 그런 글이 빠지는 함정 일곱 가지를 골라, 떨어지는 글과 살아나는 글을 나란히 놓고 보여 줍니다. 무엇이 다른지 눈으로 확인하고, 마지막 장의 점검표로 내 글을 직접 비춰 보십시오.

01 장면이 없는 글
02 어디서 본 듯한 문장
03 감정만 있고 사건이 없는 글
04 백화점식 나열
05 자동으로 붙는 깨달음
06 학교 칭찬으로 채운 지원 동기
07 실패가 없는 완성형 인간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미추홀외고를 1기부터 지도해 온 원장이 자소서·면접 대비반 수업용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수록된 사례는 모두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 쓴 가상의 글이며, 특정 학생의 글이 아닙니다.

이 자료를 읽기 전에

일곱 가지 함정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규정 위반은 없는데, 다 읽고 나서 '이 학생이 누구인지'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정 7가지 한눈에 보기

번호	함정 · 대표 증상	한 줄 진단
01	**장면이 없는 글** 열심히 · 꾸준히 · 많이	부사와 형용사가 사실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노력의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02	**어디서 본 듯한 문장** 진실성이 드러나지 않는 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도 아닙니다.
03	**감정만 있고 사건이 없는 글** 벅찼다 · 뜨거웠다 · 눈물이 났다	글쓴이는 울었는데 읽는 사람은 왜 우는지 모릅니다. 감정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04	**백화점식 나열** 한 글에 경험 네 개	많이 보여 주려다 아무것도 남기지 못합니다. 깊이가 없습니다.
05	**자동으로 붙는 깨달음** ~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경험을 읽기 전에 결론을 맞힐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 경험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06	**학교 칭찬으로 채운 지원 동기** 훌륭한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이야기만 있고 '나'가 없습니다. 다른 외고 이름을 넣어도 성립합니다.
07	**실패가 없는 완성형 인간** 항상 · 누구보다 · 완벽하게	겸손이 빠졌습니다. 읽는 사람의 첫 반응이 '좋은 학생이구나'가 아니라 '정말?'입니다.

읽는 순서

하나. 떨어지는 글 먼저	해설을 읽기 전에 '떨어지는 글'을 먼저 읽고, 어디가 문제인지 스스로 짚어 봅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짚어 본 뒤에 읽어야 해설이 남습니다.
둘. 왜 떨어지는가	심사위원의 자리에서 그 글을 읽으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내가 짚은 문제와 같은지, 다른지 비교합니다.
셋. 살아나는 글과 비교	두 글 사이에서 '무엇이 달라졌나'를 찾습니다. 그 차이가 곧 내 글에 적용할 처방입니다. 마지막 장의 점검표에 내 글의 문장을 옮겨 적습니다.

사례에 대하여

- 수록된 글은 모두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 쓴 가상의 사례입니다. 특정 학생의 글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이름과 상황도 지어낸 것입니다.
- '살아나는 글'은 정답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 글을 베끼면 그 순간 함정 2번(어디서 본 듯한 문장)에 빠집니다. 내 경험으로 내 문장을 써야 합니다.
- 자소서의 기준은 세 단어입니다. 담백하게, 진솔하게, 겸손하게. 일곱 함정은 모두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빠진 글입니다.

열심히 · 꾸준히 · 많이

01 장면이 없는 글

부사와 형용사가 사실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노력의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문장, 혹시 내 글에도?

- 한 문단에 '열심히', '꾸준히', '많이', '다양한'이 세 번 이상 나온다.
-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묻는 질문에 글이 대답하지 못한다.
- 이름을 지우고 다른 지원자 이름을 넣어도 문장이 그대로 성립한다.

떨어지는 글 자기주도학습 경험

저는 영어를 좋아해서 중학교 내내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단어도 열심히 외우고 독해 문제도 많이 풀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실력이 많이 늘었고, 영어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미추홀외고에 입학해서도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왜 떨어지는가 – 심사위원의 자리에서

이 문단에서 이 학생만 쓸 수 있는 문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사위원은 '노력했다'는 주장이 아니라 노력의 모양을 봅니다. 몇 시에,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가 없으면 믿을 근거가 없고, 근거가 없는 글은 아무리 간절해도 평범한 글로 읽힙니다. 피상적인 글의 정체는 게으름이 아니라, 장면을 꺼내 놓는 대신 요약으로 때운 습관입니다.

살아나는 글 자기주도학습 경험

중2 겨울방학에 영어 원서『Holes』를 펼쳤다가, 첫 쪽에서 모르는 단어를 세다 열네 개에서 책을 덮었습니다. 사흘 뒤 규칙을 바꿨습니다. 하루 두 쪽만 읽고, 모르는 단어는 세 개까지만 찾고 나머지는 앞뒤 문장으로 뜻을 짐작해 연필로 적어 두기로 했습니다. 짐작이 맞았는지는 주말에 한꺼번에 확인했습니다. 3월에 마지막 장을 덮고 세어 보니, 짐작해 적은 단어 서른일곱 개 가운데 스물아홉 개가 맞았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 시간(중2 겨울), 대상(『Holes』), 행동(하루 두 쪽·세 개까지만)이 구체적입니다.
-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규칙을 바꾼 행동**이 끈기를 증명합니다.
- 결과가 자랑이 아니라 확인(서른일곱 개 중 스물아홉 개)으로 끝납니다.

스스로 묻기

내 글에서 '열심히'를 지우면, 그 자리에 들어갈 장면이 있는가?

진실성이 드러나지 않는 글

02 어디서 본 듯한 문장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도 아닙니다.

이런 문장, 혹시 내 글에도?

- 글로벌 리더, 세계를 무대로, 꿈을 향해, 인재가 되겠습니다 같은 말이 벼대를 이룬다.
- 다 읽고 나서도 이 학생이 어떤 아이인지 한 가지도 말할 수 없다.
- 부모님이 고쳐 준 문장, 인터넷 예시글에서 가져온 문장이 섞여 있다.

떨어지는 글 지원 동기 · 진로 계획

저는 어려서부터 외국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글로벌 시대에는 외국어 능력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추홀외고에서 언어 실력을 키워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

왜 떨어지는가 – 심사위원의 자리에서

심사위원은 이 문장을 한 해에 수백 번 읽습니다. 틀릴 수 없는 말은 안전해 보이지만, 그 안전함이 곧 익명성입니다. 진실성은 거창한 고백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학생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작은 사실, 그날의 날씨와 물건과 말 한마디에서 나옵니다. 진심은 '진심입니다'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꾸며 낼 수 없는 디테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글 지원 동기 · 진로 계획

외국어에 처음 마음이 간 날을 기억합니다. 중1 여름, 동네 마트 계산대 앞에서 외국에서 오신 아주머니가 '유통기한'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 쩔쩔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포장지의 날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그 나라 말로 '날짜'가 무엇인지 찾아보다가, 말이 통하지 않는 순간 사람이 얼마나 작아지는지를 처음 생각했습니다. 제가 외국어를 배우려는 이유는 '활약'보다는, 누군가 그 자리에서 작아지지 않게 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 계기가 '관심이 많았다'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제시됩니다.
- 유통기한, 손가락, 포장지의 날짜처럼 지어낼 수 없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 거창한 단어 없이도 이 학생이 외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전해집니다.

스스로 묻기

이 문단을 처음 읽는 사람이, 내가 어떤 아이인지 한 가지라도 말할 수 있는가?

벅찼다 · 뜨거웠다 · 눈물이 났다

03 감정만 있고 사건이 없는 글

글쓴이는 울었는데 읽는 사람은 왜 우는지 모릅니다. 감정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장, 혹시 내 글에도?

- 감동, 행복, 뿌듯, 벅차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같은 감정 단어가 문단마다 나온다.
-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이라는 표현이 있다. (표현해야 하는 글에서 표현을 포기한 문장입니다.)
- 읽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고 멈칫한다. 감정의 크기와 사건의 크기가 맞지 않는다.

떨어지는 글 인성 – 협력

합창 대회 연습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무대에 올라 마지막 음을 마쳤을 때,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벅찼습니다. 친구들과 하나가 된 느낌에 가슴이 뜨거워졌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협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정말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왜 떨어지는가 – 심사위원의 자리에서

감정은 글쓴이에게는 사실이지만, 읽는 사람에게는 결론입니다. 결론만 전달하면 독자는 따라올 수 없습니다. '무엇이 있었기에' 벅찼는지, 그 사건이 빠지면 감정 단어는 공중에 뜹니다. 감정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보여 주면 읽는 사람 쪽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글은 솔직한 글이 아니라, 독자를 잊은 글입니다.

살아나는 글 인성 – 협력

합창 대회 2주 전, 알토 파트 세 명이 음을 못 잡아 연습이 번번이 끊겼습니다. 소프라노 쪽에서 한숨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알토 친구 하나가 혼자 남아 피아노로 같은 소절을 열 번 넘게 치는 것을 봤습니다. 다음 날부터 점심시간에 알토 파트 옆에 서서 같이 불렀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한숨을 쉬었던 것이 미안해서였습니다. 대회 날 그 소절이 끊기지 않고 지나갔을 때, 저는 무대 위에서 그 친구 쪽을 돌아봤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 감정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감정은 더 분명하게 전해집니다.
- 갈등(한숨)을 숨기지 않고, **내 행동과 그 이유**(미안해서)를 씁니다.
- 마지막 문장이 '벅찼다' 대신 '돌아봤다'라는 행동으로 끝납니다.

스스로 묻기

감정 단어를 모두 지워도, 이 글은 읽는 사람을 움직이는가?

한 글에 경험 네 개

04 백화점식 나열

많이 보여 주려다 아무것도 남기지 못합니다. 깊이가 없습니다.

이런 문장, 혹시 내 글에도?

- '~도 했고, ~도 했으며, ~에도 참여했습니다'가 한 문단에 이어진다.
- 경험 하나당 한두 문장이다. 어느 하나도 시작과 끝이 없다.
- 마무리가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로 시작한다.

떨어지는 글 자기주도학습 경험

저는 중학교 3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영어 독서 동아리에서 원서를 읽었고, 학급 토론 수업에서 사회자를 맡았습니다. 수학 멘토링에서 친구를 가르쳐 봤고, 역사 신문 만들기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폭넓은 시야와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왜 떨어지는가 – 심사위원의 자리에서

네 가지 경험을 한 문단에 넣으면 심사위원은 네 가지가 아니라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열은 '많이 했다'를 말하려는 것인데, 자소서는 양을 심사하는 글이 아닙니다. 폭은 학교생활기록부가 보여 줍니다. 자소서는 그중 하나를 골라 깊이를 보여 주는 자리이며, 무엇을 골랐는가 자체가 그 학생을 말해 줍니다.

살아나는 글 자기주도학습 경험

학급 토론 수업에서 사회자를 맡은 날, 저는 토론을 망쳤습니다. 찬성 쪽 친구가 말을 길게 하자 끊지 못했고, 반대 쪽은 발언 기회를 두 번이나 놓쳤습니다. 수업 뒤 반대 쪽 친구가 '너 찬성이지?'라고 했을 때, 사회자가 중립이라는 말의 뜻을 그때 처음 몸으로 알았습니다. 다음 토론까지 2주 동안 저는 발언 시간을 재는 역할을 자청했고, 1분 30초가 넘으면 손을 드는 신호를 반과 합의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제가 한 말이 가장 적은 토론이었고, 그것이 사회자가 잘한 토론이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 경험 하나만 골라 시작부터 끝까지 씁니다.
- 실패 → 알게 된 것 → **행동 변화**의 순서가 분명합니다.
- '자기주도'라는 단어 없이 자기주도가 보입니다.

스스로 묻기

내 자소서에서 경험을 하나만 남긴다면 무엇을 남길 것이며, 그 하나로 한 문단을 채울 수 있는가?

~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05 자동으로 붙는 깨달음

경험을 읽기 전에 결론을 맞힐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 경험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장, 혹시 내 글에도?

- 모든 문단이 '~을 깨달았습니다 / 배웠습니다 / 느꼈습니다'로 끝난다.
- 깨달음이 소통의 중요성, 배려의 소중함, 협력의 가치처럼 경험 없이도 아는 말이다.
- 깨달은 뒤에 달라진 행동이 한 줄도 없다.

떨어지는 글 인성 – 갈등 관리

조별 과제에서 친구와 의견이 달라 다툰 적이 있습니다. 서로 감정이 상했지만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었고 과제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소통의 중요성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갈등이 생기면 대화로 해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왜 떨어지는가 – 심사위원의 자리에서

'소통의 중요성'은 다툼을 겪지 않은 사람도 아는 말입니다. 경험을 거쳐 나온 깨달음이라면 경험 이전에는 몰랐던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은 문장이 아니라 그 뒤의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깨달았습니다'라고 쓰는 순간 심사위원은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는데?'를 묻습니다. 그 질문에 답이 없으면 깨달음은 장식입니다.

살아나는 글 인성 – 갈등 관리

조별 발표 자료를 만들며 민서와 다퉜습니다. 저는 자료를 통째로 다시 만들자고 했고, 민서는 고칠 부분만 고치자고 했습니다. 결국 제 뜻대로 했고 발표는 무난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민서는 그 뒤로 조 단체 채팅방에서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옳았다고 생각했는데, 옳은 쪽이 이기고 나서 남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무언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조별 과제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안을 두 번째로 냈습니다. 먼저 민서의 안을 끝까지 듣고, 거기에 제 생각을 붙이는 식으로요. 그 과제의 결과물은 제 첫 안보다 나았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 깨달음이 '~의 소중함'이 아니라 **나만의 구체적인 의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 깨달음 이후의 행동 변화(제 안을 두 번째로 냄)가 증거가 됩니다.
- 내가 틀렸을 수 있다는 지점을 피하지 않고 씁니다.

스스로 묻기

내 글의 깨달음은 이 경험을 하기 전에는 몰랐던 것인가? 그 뒤로 내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썼는가?

06 훌륭한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칭찬으로 채운 지원 동기

학교 이야기만 있고 '나'가 없습니다. 다른 외고 이름을 넣어도 성립합니다.

이런 문장, 혹시 내 글에도?

- 우수한 교육과정, 훌륭한 교사진, 다양한 프로그램 같은 학교 홍보 문구가 그대로 들어 있다.
- 학교의 장점은 네 가지인데, 그것이 나와 왜 맞는지는 한 줄도 없다.
- 학교 이름을 다른 외고로 바꿔도 글이 그대로 성립한다.

떨어지는 글 지원 동기

미추홀외고는 우수한 교육과정과 훌륭한 선생님들, 그리고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갖춘 학교입니다. 또한 면학 분위기가 좋고 선배들의 진학 실적도 뛰어납니다. 이런 환경에서 공부한다면 저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미추홀외고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왜 떨어지는가 – 심사위원의 자리에서

지원 동기는 학교를 평가하는 글이 아니라, '나의 어떤 점'과 '이 학교의 어떤 점'이 맞물리는지를 보여 주는 글입니다. 학교 칭찬만 있으면 심사위원은 '좋은 학교라서 오고 싶다'로 읽고, 그것은 모든 지원자가 같습니다. 학교 이름을 가리고 읽어도 '이 학생은 여기에 와야겠다'가 느껴져야 합니다. 학교를 아는 것보다 나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살아나는 글 지원 동기

저는 혼자 공부할 때보다 옆에 사람이 있을 때 더 오래 앉아 있는 편입니다. 중2 때 친구와 도서관에서 같은 시간에 만나 각자 공부하기로 하고 석 달을 지켜봤습니다. 혼자였던 때보다 하루 평균 한 시간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미추홀외고 설명회에서 기숙사에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자습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석 달 동안 확인한 그 조건이 매일 주어지는 학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학생이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고르는 데 신중했고, 그 결론이 이 학교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 나의 공부 방식이 **확인된 사실**(석 달, 하루 한 시간)로 먼저 나옵니다.
- 학교의 장점을 나열하지 않고, 나와 맞물리는 특징 하나에만 연결합니다.
- '특별한 학생이 아니라'라는 겸손한 자기 인식이 오히려 신뢰를 줍니다.

스스로 묻기

내 지원 동기에서 학교 이름을 다른 외고로 바꿔도 글이 그대로 성립하는가? (성립하면 다시 써야 합니다.)

항상 · 누구보다 · 완벽하게

07 실패가 없는 완성형 인간

겸손이 빠졌습니다. 읽는 사람의 첫 반응이 '좋은 학생이구나'가 아니라 '정말?'입니다.

이런 문장, 혹시 내 글에도?

- 항상, 언제나, 늘, 누구보다, 완벽하게가 반복된다.
- 실패나 시행착오를 쓴 문장이 하나도 없다.
- 장점을 스스로 이름 붙인다. ('저의 가장 큰 장점은 리더십입니다.')

떨어지는 글 인성 – 배려

저는 항상 친구들을 먼저 배려하고, 어떤 일이든 책임감 있게 완수합니다. 반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늘 제가 먼저 나서서 해결했고, 친구들은 저를 믿고 따라 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저의 리더십을 자주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디서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며, 그 점이 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왜 떨어지는가 – 심사위원의 자리에서

자소서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항상'과 '늘'은 증명할 수 없는 말이고, 증명할 수 없는 말은 읽는 사람의 의심을 삽니다. 더 큰 문제는 실패가 없으면 성장도 없다는 점입니다. 심사위원이 보고 싶은 것은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달라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담백하게, 진솔하게, 겸손하게 – 세 가지 가운데 이 글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나는 글 인성 – 배려

저는 배려를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 생각이 깨진 것은 중3 체육대회 준비 때였습니다. 응원 도구를 만드는 날, 저는 손이 느린 친구 몫까지 제가 다 해 버렸습니다. 빨리 끝내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다음 날부터 준비 모임에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배려가 아니라 제 속도를 밀어붙인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도와주기 전에 한 번 묻는 습관을 들이려고 합니다. 아직 잘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묻고 나서 손을 대는 것과 그냥 손을 대는 것이 다르다는 것은 압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 '항상 배려' 대신, 배려라고 믿었던 것이 **틀렸던 사례**를 씁니다.
- '아직 잘 안 될 때가 더 많다'는 고백이 겸손을 증명합니다.
- 그래도 달라진 행동 한 가지(묻고 나서 손을 댄다)가 분명합니다.

스스로 묻기

내 글에 '항상·늘·누구보다·완벽'이 있는가? 내가 틀렸던 순간이 한 번이라도 나오는가?

내 글 점검표

초고를 다 쓴 뒤, 일곱 질문에 하나씩 답해 봅니다. 해당하는 함정이 있으면 내 글에서 그 문장을 찾아 오른쪽 칸에 옮겨 적습니다. 그 문장이 첨삭의 출발점입니다.

함정	점검 질문	내 글에서 찾은 문장
01 ☐	내 글에서 '열심히'를 지우면, 그 자리에 들어갈 장면이 있는가?	
02 ☐	이 문단을 처음 읽는 사람이, 내가 어떤 아이인지 한 가지라도 말할 수 있는가?	
03 ☐	감정 단어를 모두 지워도, 이 글은 읽는 사람을 움직이는가?	
04 ☐	내 자소서에서 경험을 하나만 남긴다면 무엇을 남길 것이며, 그 하나로 한 문단을 채울 수 있는가?	
05 ☐	내 글의 깨달음은 이 경험을 하기 전에는 몰랐던 것인가? 그 뒤로 내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썼는가?	
06 ☐	내 지원 동기에서 학교 이름을 다른 외고로 바꿔도 글이 그대로 성립하는가? (성립하면 다시 써야 합니다.)	
07 ☐	내 글에 '항상·늘·누구보다·완벽'이 있는가? 내가 틀렸던 순간이 한 번이라도 나오는가?	

담백하게, 진솔하게, 겸손하게.

좋은 자소서는 잘 쓴 글이 아니라, 그 학생이 아니면 쓸 수 없는 글입니다. 장면을 꺼내 놓고, 내 말로 쓰고, 감정 대신 사건을 보여 주고, 하나를 깊게 파고, 달라진 행동으로 깨달음을 증명하고, 학교보다 나를 먼저 알고, 틀렸던 순간을 숨기지 않으면 됩니다. 일곱 가지 함정을 피하는 일은 결국 한 가지 일입니다.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바른에듀케이션은 그 솔직한 문장이 나올 때까지 학생 옆에 앉아 함께 고칩니다.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